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26, 사사기 6-9장 기드온과 그 여파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것은 26회기, 사사기 6-9장, 기드온과 그 여파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를 논의할 것인데, 그것은 그가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과 함께한 시간의 여파입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삼손 다음으로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 중 한 사람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네 장을 차지합니다.

기드온은 세 장과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판사들의 이야기가 그렇듯 시작됩니다. 그것은 드보라와 베릭 이후 40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렸다고 말하는 5장의 마지막 줄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절은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들의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았으며, 그들의 음식을 도적질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우 낮아졌습니다(6장 6절).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음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이전 기록들과 대조적으로, 이제 우리는 훨씬 더 확장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10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위하여 신실하사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와서 나타나니라

그래서 우리는 11절에서 주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요아스의 땅인 그 곳에 와서 실제로 기드온에게 나타난다. 기드온은 실제로 그곳에서 밀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드온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기서는 그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돌아와서 거기 놓아두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 끝으로 그것을 만지니(20절, 21절) 즉시 소멸되더라 불로. 그러므로 이것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명한 주님의 표징이며 우리는 22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24절. 그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와는 평강이시다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고 이 책을 기록하는 날까지 거기에 서 있느니라. 여기서 잠시 멈춰서 주님의 천사의 정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천사가 언급되는 곳은 이 곳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천사가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논의 중 일부를 통해 이야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님의 천사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에 대해 세 가지 다른 옵션이 제시됩니다. 우선, 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락(mal'ak)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는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온 천사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사자이자 대표자입니다. 선지자 말라기, 그의 이름은 말라키입니다. 접미사 i는 나의 뜻이므로 그의 이름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이다.

그러면 천사 주님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택은 무엇이며, 그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한 가지 옵션은 그것이 실제로 기본적으로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과 같은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자신보다 열등하지만 분명히 신성한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사람이나 집단 앞에 눈에 보이는 임재로 하나님 자신이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으로 내려오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주 제시되는 세 번째 옵션은 천사 주님이 실제로 우리가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 자신의 현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성육신하시기 전, 그분은 각기 다른 시대에 인간의 형태나 천사의 형태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장소.

출애굽기의 천사 주님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우리에게 천사 주님을 소개하며, 천사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게 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를 삼가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거역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음이니라 이 경우에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권위가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이름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거의 신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암시적으로, 그 반대 측면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당신이 반역한다면 이 경우에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삼가하면(22절), 내가 너희 대적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나는 당신에게 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적들에게 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일입니다. 23절, 나의 천사가 너희 앞서 가서 너희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 등으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들을 멸절하리라.

그래서, 그것은 간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주님의 천사의 신분이나 주님의 천사의 권위가 주님 자신, 하나님 자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2장 뒷부분과 33장 일부의 다른 구절에서 우리는 주님과 그의 천사 사이의 구별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2장 34절부터. 다음 장에서는 17절쯤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의 천사의 특징은 하나님 자신과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33장 2절에는 내가 천사를 네 앞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등을 쫓아내겠다.

그러나 이 천사는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용서하지도 않고 죄를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부 복음주의 해석가들은 이러한 주님의 천사의 현현을 우리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신약성서 이전의 계시, 즉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 10장과 에스겔 1장에도 천사의 유형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에 대해 묘사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신약성서에서 주님의 천사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예수라면 오시기 전에는 주의 사자라 일컬었으나 여기 계실 때에는 그렇게 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단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천사가 보내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신약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데 매우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저자들에게서 구약성서의 인용문과 비유를 반복해서 발견하고, 이 일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출현이 실제로 성육신 전의 예수였다면, 신약성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마태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예수였으며 예수는 지금 그 일들을 성취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매우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신약성서의 침묵은 퍼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으로부터 온 별도의 메신저, 천사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본성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된 천사가 있는데, 기드온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천사의 본성에 관해 우리가 발견한 일종의 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사기 6장으로 돌아가는데 기드온은 매우 과묵합니다. 15절에서는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본 구절 다음에 내려와 하나님은 26절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장에서 주님의 천사와 주님 사이의 일종의 상호 작용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종의 다른 방식일 뿐이지만, 아마도 신은 개인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의 가까운 대표자일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거기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26절에서 찍고 있는 아세라 목상 나무를 취하여 자신의 번제를 위한 불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일을 행하는데, 27절에서는 두려워서 자기와 함께 행한 열 종 외에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음 날 모두가 깨어났을 때 제단이 무너졌습니다(28절).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기드온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당신의 아들을 이끌어 죽게 해달라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신실하게 숭배하고 그들의 숭배의 상징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일어나서 그들을 반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느냐? 즉, 진짜 신이 아닌 이 신,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이 신을 실제로 변호할 건가요? 아니면 그를 구해줄 것인가? 당신이 그를 구출할 사람이 될 건가요?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경고를 받아 죽임을 당하리라. 만약 그가 신이라면 스스로 싸우게 놔두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제단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지금 32절에서 흥미로운 아이러니는 요아스가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적어도 그 날 이후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두 번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두 번째 부분인 바알(Baal), 바알(Baal), 예루(Yeru)를 주의 깊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툼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장난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너희가 바알을 위해 싸우겠느냐고 말한다. 그를 변호할 건가요? 그를 위해 논쟁할 건가요? 그리고 기드온이 얻는 아이러니한 이름은 바알이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 텍스트 아래에는 예,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투지만 실제로 그를 패배시킨 사람은 기드온이고 그는 그 아이러니한 망토를 스스로 취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소서. 그가 제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그를 방어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군이 오고 있는데 34절에 보면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36절 마지막 부분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드온이 양털, 양털을 내놓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확증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는 양털을 꺼낼 테니 아침에 이슬이 내리도록 하십시오. 만일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은 젖어 있다면 이는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평소에는 이슬이 땅을 적시겠지만 땅 주위와 양털 위에 이슬이 없으면 말씀하시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다음 기드온은 불명예스럽게도 두 번째 표징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는 이전의 세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천사에게 표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그 반대로 하여 양털은 마르게 하고 땅은 젖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도 그 요청에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이것이 최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의 노를 내게로 나타내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즉, 나에게 너무 화내지 말고 다시 해보고 싶다는 뜻이다. 제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많은 복음주의 집단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행동과 결정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늘 주님을 위해 양털 한 뭉치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거나 저 사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문이 열려 있으면 저 문도 열려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은혜롭게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실제로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함에도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추가 표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표시가 필요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어리석고 불필요한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이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더 나은 예는 이사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는 양털 한 뭉치를 내놓고 이리 저리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단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제자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 했고, 이사야와 제자들은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 했습니다. 기드온도 같은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즉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나 특별한 계시에서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 진학할 학교의 선택이요.

때때로 우리는 이에 대한 진정한 답을 성경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문을 열어주시든지 저 문을 닫아 주시든지 그것이 인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 기드온이 여기서 했던 것처럼 전술을 지연시키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7장과 8장에 나오는 큰 전쟁의 서막입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을 허무는 일에서 선한 일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나타난 주님의 천사에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에는 미디안과의 대규모 전투가 나옵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는 7장에서 주군을 상대하는 부분입니다. 8장에서는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장밋빛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기드온과 그의 300명, 즉 그의 부하들의 이야기로 소개됩니다. 결국 300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의 무대를 마련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7장이 기드온의 이름 여로보암으로 시작된다는 점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본 바알에 대한 논쟁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 남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누구든지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22,000개 남았고 10,000개 남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처음에는 32,000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000명이 사라졌고 그에게는 10,000명의 병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매우 인상적인 전투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승인되지 않은 방법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전투에 투입할 사람은 겨우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이 미디안의 세력과 맞서기에는 너무 작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8장 15절에 보면, 12만 명이 전사하고 남은 군사가 1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맥락에서 구약성서의 많은 숫자가 일종의 까다로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언어적 문제로 인해 이 숫자가 1,000배로 부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8장에서는 여기 150명과 1,200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여기 기드온 시대에 300명은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기드온의 숫자가 어떠하든, 그 큰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숫자는 여전히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점입니다.

분명히 그 뒤에 암시된 요점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영예는 기드온이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서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장, 7장에서 이 서문 다음에 9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캠프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의 종과 함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사람 중 한 사람이 자기 동료 중 한 사람에게 자신이 꾸 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꿈에 큰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 모든 사람을 쳐서 모두 죽게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지는 그 꿈을 '아, 문제는 기드온의 진영, 기드온의 칼,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문제'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14절 7장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는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한 말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이 사람이 이 꿈을 해석하고, 이 미디안 사람이 우리가 가라앉는 꿈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15절 이하에서 이에 대해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을 여러 떼로 나누고, 모두 나팔을 불고, 횃불과 빈 항아리를 가지고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때에는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19절에서 그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는데 이는 더 큰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해 칼을 외쳤다.

그리고 모두가 제 자리에 서 있었고, 군대는 달려갔고, 알고 보니 모든 미디안 사람들이 깨어났고, 그들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결국 서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땅의 북쪽 부분에 있는 여러 부족들의 일종의 공동 노력입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여 24절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25절에서는 그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이브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장 마지막 절에서 기드온에게 머리를 돌려 보냈습니다. 큰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신에게 그 공로를 인정할 것이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드보라의 노래와 같은 또 다른 노래를 기대할 수도 있고,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디안의 손에 주셨거나 미디안 자신이 이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진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기드온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8장 서두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전쟁을 돕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반응하고 실제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5절에서 내가 미디안의 두 왕을 쫓느라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전투는 이스라엘 전체의 연합이라기보다는 기드온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장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내보내시는 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예를 들어 10절의 시바와 살무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 왕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것을 얻고 그의 젊은이 중 한 명에게 이 섹션의 끝 부분에서 이 왕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20절에 보면 장자 게더에게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두려워서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왕은 21절에서 기드온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덮치십시오.

사람의 힘도 그러하니라. 그들은 그의 남성성에 대해 거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겁쟁이입니까? 우리에게 넘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도전을 받아들여 일어나 그들을 죽이고, 그들과 함께 있던 장식품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 전체가 진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여파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대신에 우리에게는 아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럼 22절과 23절, 2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22절) 이르되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라 하였으니 이는 놀라운 일이니라.

이것은 왕족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왕권의 언어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고 왕조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모든 문화권의 왕들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저는 다른 강의에서 이스라엘의 왕권 수립과 성경이 말하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될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신적인 이상적인 왕의 대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 말며 말을 늘리지 말며 애굽과의 외국 동맹을 의지하지 말며 아내와 재물을 늘리지 말지니라 그러나 오히려 왕,

이스라엘의 왕,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왕의 성공의 열쇠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반문화적인 모습입니다. 그 영상은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사사기, 심지어 룯기까지 다루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시청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왕권에 관한 구절을 다시 살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는 곳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왕들은 슬프게도 그 이상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그 그림은 주변 국가의 왕권에 대한 그림과 근본적으로 반문화적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강의에서도 했던 시각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전차를 타고 있는 파라오를 보여주는 이집트 부조의 한 장면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큰 전투에 대한 더 큰 부조의 일부로 이집트 부조에서 발견된 그림을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리면 학생들이 항상 제가 형편없는 예술가라고 불평하는데, 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는 파라오의 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바닥에 흩어졌고 바로의 병거와 말이 그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묘사의 요점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위대한 전사, 모든 적을 쉽게 정복하고 그들을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발과 병거와 말 아래 두는 용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림은 바빌론과 앗시리아의 부조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근동 동부 전역에는 사회의 왕이 가장 위대한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가장 위대한 전사는 왕이 되기 위해 올라야 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한 성경의 그림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다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차를 끄는 것은 말이었다. 전차는 고대의 탱크에 해당하며 군대의 중추였습니다. 따라서 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방어 또는 공격을 강화하고 군대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군대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매우 근본적으로 반문화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일부로 삼고, 여호와께 의지하여 전쟁을 싸워야 했습니다. 신적인 전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구약 전체에 걸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들은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부조에 묘사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인, 아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의 기록된 텍스트에서도 같은 종류의 그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왕들은 자기들이 가장 크며, 만물을 이긴 자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가장 큰 초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을 숭배하는 현대의 독재자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비극은 아이러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기드온에게 그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끝, 주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그들은 군대를 300명으로 키웠던 교훈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 요점은 당신의 얼굴에 있는 코처럼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 작은 숫자로 내려갈 때 어떤 승리가 오더라도 기드온이나 다른 누구의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구원을 바라는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슬픈 일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래서 당신이 말했어야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는 주일학교 응답이라고도 불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 주일학교는 답을 줍니다. 항상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초영적인 답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증거가 그 방향을 가리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과 함께 코끼리 그림을 그린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교사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반원들에게 '이게 뭐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게 뭐죠?"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친숙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결국 뒤에 있는 어린 소년이 소심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대답은 예수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제 눈에는 확실히 코끼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증거가 다른 방향을 가리킬지라도 그것이 항상 그가 말해야 하는 초영적인 대답이라는 일종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드온은 여기 23절의 대답에서 주일학교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딱 맞는 말이네요.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의미에서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대답을 약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지도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주님의 방향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기드온은 네 물건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귀중품을 모두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기꺼이 주겠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네 물건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그들의 보물을 가져왔을 때의 아이러니한 반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장막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기드온은 그것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에봇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제사장이나 누군가가 사용하는 일종의 흉패인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12개의 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뜻을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사람들이 그것을 마법적인 것으로 보고 싶어하는 일종의 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모든 재료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두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행하였더라(27절). 이스라엘 전체가 그 일을 따라 매춘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매춘부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녀의 생생한 이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매춘부 추적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비유적 사용, 은유적 사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과 여신들을 따라 매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행하였으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가족에게 울무가 되었느니라. 따라서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 28절은 기드온 이야기의 이 부분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굴복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큰 전투에서 승리했고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시대에 땅이 4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이로써 기드온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합 가방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좋은 일을 합니다. 결국 그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29절 이하에서는 그에게 아들이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절에는 아들이 7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집안의 하인 같은 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들, 우리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임을 봅니다. 그리고 실바와 빌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첩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직원, 하인, 슬래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출산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여기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31절에서 그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제가 말한 것을 여기에서 복습하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대한 약간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신약성경에서 아바(Abba)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용어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Av입니다. Avi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영어로 my father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단어는 멜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이 그의 아들을, 내 아버지를 왕으로, 또는 내 아버지를 왕으로 명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면서도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왕이라 하였으니”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이는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행동이 23절에서 제시한 주일학교 답변을 훼손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기드온은 죽자마자 33절에 장수하여 죽으니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사람들은 다시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33절).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루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보답으로 그 가족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선한 일을 했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마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끔 듣는 용어를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끝.

그래서 다음 장은 기드온의 여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아비멜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건도 그렇고. 따라서 아비멜렉은 폭력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8장의 왕에 대한 요청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열국과 마찬가지로 왕을 요청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아비멜렉의 경우에 그들은 그런 종류의 왕을 구합니다. 왕.

그들은 위대한 전사로 자리매김한 왕을 얻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중 70명을 죽였고 기드온의 아들은 72명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들 중 70명을 죽이고 한 사람인 요담은 도망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용사왕의 좋은 본보기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아주 나쁜 본보기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죽임으로써 권력을 잡게 됩니다(9장 1-6절). 그리고 6절에서 세겜에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동생 요담은 도망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 세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도망한 형제 요담이 이 말을 듣고 세겜을 바로 덮는 그리심 산 꼭대기에 이르러 큰 소리로 외쳐 말하는데 이는 세겜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이니 곧 아비멜렉을 고발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화로 제시됩니다.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은 그들 위에 왕을 세우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은 감람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왕이 되소서! 8장 22절의 표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나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나무는 거절합니다. 나는 내 물건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나무로 갑니다(10절). 12절에도 그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식물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네, 물론이죠. 그렇게 할게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엄한 나무의 수준을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그림이고, 왕으로 즉위한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지만, 군사적 기량을 기반으로 한 왕에 대한 요청에서 나오는 메아리입니다.

이것이 8장 22절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여기서 아비멜렉의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화를 사용하여 그들이 행한 일이 우스꽝스러운 일임을 보여 주고 나서 16절에서 그것에 대해 논평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때에 선과 의로 행하였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믿음을 행하였으면(19절) 너희는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도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벤멜로의 지도자들을 사를 것이요, 그러면 불이 나가리라. 그리고 그는 도망칩니다. 22절 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약 3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 사이에 갈등, 긴장, 갈등 등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여러 차례 왔다갔다하는 긴 장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세겜과 세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45절에서는 아비멜렉이 하루 종일 그 성을 향하여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소금으로 바느질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황량하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는 뜻이다. 그 여파로 여전히 그에 대한 저항의 주머니가 남아 결국 그는 근처에 있는 데베스라는 곳의 망대에 이르는데 그곳에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51절). 이에 맞서 싸우고 그 탑을 불태울 준비를 합니다.

한 여자가 그의 머리에 맷돌을 던졌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그 아비에게 범한 악을 갚으시고, 세겜 사람들의 악도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셔서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의 형제 70명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등을 돌리셨고, 그는 3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성경은 결코 그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하나님에 대한 기준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위대한 전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을 왕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겜의 죄, 세겜의 악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과 세겜 사이에 일종의 얼룩진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세겜이 아디나를 강간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들과 그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곳에서 악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세겜 사람들은 요즘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마도 궁극적으로 성경의 맨 처음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종의 추악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음 장에서 나올 훨씬 더 더러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것은 26회기, 사사기 6-9장, 기드온과 그 여파입니다.